

## 형용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은 합성 형용사의 특성 연구

김문기\*

### I. 서론

한국어의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문법 범주적 특징과 관련하여 형태·통사적인 특징 등에 대한 것이고,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그 분류나 논항 구조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조어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복합어 형용사를 대상으로 그 구성 방식과 개별 구성 요소들에 대해 면밀히 살핀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자는 어근과 접사뿐 아니라 복합어 형용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면면을 고찰하는 것이며, 후자는 복합어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먼저 복합어 형용사의 구성 방식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자립 요소+자립 요소  
 ㄴ. 자립 요소+의존 요소, 의존 요소+자립 요소

(1ㄱ)은 자립 요소끼리 결합한 합성 형용사에 해당되고, (1ㄴ)은 자립 요소에 파생 접사와 같은 의존 요소가 결합된 파생 형용사에 해당된다.

합성 형용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 (2) ㄱ. 형용사+형용사  
 ㄴ. 형용사+비형용사, 비형용사+형용사  
 ㄷ. 비형용사+비형용사

(2ㄱ)은 구성 요소 모두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2ㄴ)은 선·후행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형용사가 아닌 경우이다. 그리고 (2ㄷ)은 선·후행 모두 형용사가 아닌 합성 형용사에 해당한다.

이때 (2ㄱ, ㄴ)은 그 구성 요소 중 적어도 하나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어 형용사가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2ㄷ)은 구성 요소로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것이 왜 형용사가 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형용사 가운데, 그 구성 요소로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는 합성 형용사(이후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126개를 자료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들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내는 결합 양상에 초점을 두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구성 요소’는 『표준』의 표제어에서 ‘·’으로 표시된 제시 방식에 따른 직접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관련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한 몇몇 연구 성과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김문기(2019)에서는 『표준』에 등재된 합성 형용사 전체를 대상으로 그 구성 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루지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

장야(2020, 5-34)에서는 어근을 형용사와 비형용사로 구분하여 ‘형용사 어근+형용사 어근, 형용사 어근+비형용사 어근, 비형용사 어근+형용사 어근, 비형용사 어근+비형용사 어근’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때 본 논문과 유사한 유형은 마지막 것으로, ‘명사+동사, 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기타 어근<sup>2)</sup>+동사’ 유형으로 다시 구체화하였다. 특히, 비대격 동사로 본 ‘나다, 되다, 지다’가 동작보다는 상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해서 선행 어근에 대해 영향을 주고 전체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하였다.<sup>3)</sup> 하지만 파생 형용사 형성에는 ‘-긋다<sup>3</sup>, -맞다<sup>5</sup>, -받다<sup>3</sup>’ 등의 접미사도 사용되고 있고, 이들이 『표준』에 동사로도 등재되어 있어서 의미적으로 볼 때

- 
- 2) 기타 어근에 해당하는 것은 ‘간드러지다, 건드러지다, 거덕치다, 거쿨지다, 공변되다, 꺼덕치다, 들되다, 산드러지다, 샷되다, 선드러지다, 신동지다, 번질나다, 야멸치다, 움팡지다, 유들지다, 자별나다, 줌되다, 증빨나다, 출중나다’의 어근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간드러지다, 야멸치다’ 등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 ‘꺼덕치다, 들되다’ 등은 ‘꺼덕’과 ‘들’이 ‘꺼덕거리다’의 어근과 ‘들하다’의 어근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어근’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3) 장야(2020, 41-44)에서는 합성어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의미 변화, 의미 확장, 비유적 의미’로 설명하였다. 또한 ‘의미적 핵’과 ‘통사적 핵’의 개념으로 합성 형용사의 문법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장야 2020, 44-51 참조) 그러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중심 의미가 통사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설명의 한계를 드러낸다. 참고로, 오히려 이러한 통사들이 이러한 합성 형용사의 구성 요소로 쓰이면서 접사로서의 특성을 더 강하게 띠는 점에 대해서는 문법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후 합성 용언과 파생 용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전반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접사로 볼지 동사로 볼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맞다’의 경우는 『표준』에 접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 단어로도 처리되어 있는데, 동사로서의 의미와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유사하여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조지연(2010)에서는 ‘N+V형 합성 형용사’를 대상으로, N이 주어나 부사어로 해석되는 경우 그 논항 구조와 의미역을 검토하였다. 특히, N이 결합되기 전의 V과, 결합된 후의 논항 구조와 의미역의 변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때 N이 결합 전인 V의 의미 중 특정 의미가 합성에 관여하며, 이 구성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조지연(2012)에서는 ‘X+같다’가 형용사로서 어떤 논항 구조와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X(명사, 부사)와 ‘같다’가 결합하기 전과 후의 논항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단어 형성에서 X의 역할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함희진(2007)에서는 ‘동사+동사’형, ‘형용사+동사’형, ‘형용사+형용사’형 합성어를 대상으로 그 통시적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함희진(2007, 169-177)에서는 통사적/비통사적 합성 형용사의 구성 방식과 의미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통사적 합성 형용사는 ‘형용사+아/어+형용사’형은 없으며, ‘아/어’와 ‘-나다, -하다’의 결합이 많다 하였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는 현대 국어에서 [구분], [동시]의 의미 관계로 보았다.<sup>4)</sup>

오규환(2021)에서는 서술어로 쓰이는 ‘복합 서술어 구성’을 대상으로 삼아 그 유형과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복합어를 비롯하여 연어뿐만 아니라 관용어구처럼 특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오규환(2021, 296-300)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현대 국어에서의 다단어 구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형식적·의미적

4) 현대 국어에 이르면서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가 생산적인 이유는 형용사의 범주적 특징과 관련하여 상태·속성에 대한 서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상태는 내적 시간 구조 없이 고정된 속성을 지시하고, 고정된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없는 합성어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기준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성’의 정도에 따라 복합 서술어 구성이 어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오규환(2022)은 오규환(2021)에 이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형성 부분과 형성 원리 및 변화 요인 등에 초점을 둔 논의이다. 여기에서도 ‘단어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복합 서술어 구성이 어휘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환유나 은유 등을 적용하여 복합 서술어 구성의 의미와 그 논항 구조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였다.<sup>5)</sup>

이처럼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복합어 형용사 전체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복합 용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복합어 형용사, 특히 그 구성 요소로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성 형용사에 초점을 둔 논의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들의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적 성격과 함께, 그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I.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유형과 특징

여기에서는 『표준』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를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이에 합성 형용사의 구성 요소가 결합한 방식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구성 요소로 형용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형용사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5) 이 논의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과 방법 등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6) 따라서 그 구성 요소로 접사와 형용사, 보조 형용사가 포함된 것 등은 제외하였다. 김문기(2019, 25-29)에서는 형용사를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합성 형용사를 69개로 하여 연구된 바가 있는데, 『표준』의 합성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합성 형용사의 목록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준』에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를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7)</sup>

(3) 『표준』의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목록 (126개)

가멸-차다, 간드러-지다, 간-지다, 거덕-치다, 건드러-지다, 고비-늙다, 골-차다, 곰-살긋다, 곰-살맞다, 기(氣)-막히다, 기(氣)-차다, 기똥-차다, 기성(氣盛)-차다, 기운-차다, 기장-차다, 깎아-지르다, 꺼덕-치다, 낡-삭다, 넝쿨-지다, 눈썹-틀리다, 능갈-치다, 능글-차다, 다기(多氣)-차다, 다-되다, 담(膽)-차다, 대살-지다, 대-차다, 땡가라-지다, 더넘-차다, 털-떨어지다, 털-먹다<sup>1)</sup>, 덩굴-지다, 도드라-지다, 도-뜨다, 돌-나다, 동-떨어지다, 되지-못하다, 들-차다, 때-맞다, 똑-파다<sup>2)</sup>, 뛰어-나다, 마지-못하다, 매물-차다, 멋들어-지다, 메-떨어지다, 메-마르다, 목-마르다, 못-되다, 무-죽다, 바따라-지다, 번질-나다, 뺨질-나다, 보람-차다, 볼-먹다, 볼-메다, 빛-바래다, 빛-접다, 빼어-나다, 뺨-마르다, 산드러-지다, 살-차다, 새통-빠지다, 선드러-지다, 성(性)-마르다, 성-부르다, 속-상(傷)하다<sup>2)</sup>, 솟아-나다, 숨-차다, 솟-접다, 승겁-들다, 시들-마르다, 신-둥-부러지다, 실(實)-차다, 아귀-차다, 아금-받다, 아름-차다, 안-차다, 알로-까다, 알-차다, 암-피다, 앙그라-지다, 앞-차다, 야나-치다, 야멸-치다, 애-꽃다, 애-바르다, 어기-차다, 얼-뜨다, 얼토당토-아니하다, 얼토당토-않다, 열(熱)-피다, 올목-갖다, 옴팡-지다, 옹골-차다, 옹-차다, 왕창-뜨다, 우람-차다, 우렁-차다, 위엄(威嚴)-차다, 의기(義氣)-차다, 자랑-차다, 자지라-지다<sup>2)</sup>, 장(長)-차다, 정(情)-어리다, 정(情)-차다, 좌-뜨다, 주제-넘다, 청-쳐지다, 치어-나다, 피-어리다, 하차목지-않다, 한갓-지다, 해-비라지다, 헌걸-차다, 해-먹다, 해-별어지다, 해-식다, 활기(活氣)-차다, 흉(凶)-업다, 흐드러-지다, 흐무러-지다, 흐무-지다<sup>2)</sup>, 흐벅-지다, 희망(希望)-차다, 힘-들다, 힘-차다

이 과정에서 구성 요소에 형용사가 포함된 합성 형용사와 파생 형용사는 제외하였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4) ㄱ. 막돼-먹다(형): ‘막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ㄴ. 막-되다(형): (흔히 ‘막된’이나 ‘막되게’ 꼴로 쓰여) ‘1’ 말이나 행

7) 이는 2024. 7. 13.에 『표준』(<https://stdict.korean.go.kr>)에 등재된 표제어 목록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다만, ‘되다’에 대한 뜻풀이는 2024년 8월 30일에 공개된 ‘2024년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에 따라 수정된 것을 참고하였다.

실이 버릇없고 난폭하다. 「2」 거칠고 좋지 못하다. ≒잡란하다.

- ㄷ. 먹다2(보조 동사):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 주로 그 행동이나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 (5) ㄱ. 신(神)-익다(형): 일에 경험이 많아서 어떤 일에도 익숙하다.
- ㄴ. 신9(神)(명): 「1」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2」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뉘. 「3」 『기독교』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 「4」 『민속』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5」 『철학』 세계의 근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체.
- ㄷ. 익다2(형): 「1」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 「2」 여러 번 겪어 설치 않다. 「3」 눈이 어둡거나 밝은 곳에 적응한 상태에 있다.

(4)는 선행 요소가 형용사인 경우이고, (5)는 후행 요소가 형용사인 경우이다.<sup>8)</sup> 다음으로 파생 형용사를 제외하였는데,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들이다.

- (6) ㄱ. -긋다3(접사):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상태가 심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심술긋다./양살긋다./왁살긋다.
- ㄴ. -나다2(접사): (일부 명사나 명사성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맛나다./별나다.
- ㄷ. -되다5(접사):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가결되다./사용되다./형성되다. 「2」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거짓되다./참되다./어중되다.
- ㄷ. -받다3(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강요받다./미움받다./사랑받다.

8) 다만, (5ㄱ)과 (5ㄴ, ㄷ)의 의미적 관계에서 보면 (5ㄴ)의 의미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용례들이 상당수 있었다.

- ㄷ. -지다8(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값지다./기름지다./세모지다.
- ㄹ. -쩍다(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ㄴ. -하다2(접사): 「1」(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공부하다./생각하다./사랑하다. 「2」(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정직하다. 「3」(의성·의태어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덜컹덜컹하다./반짝반짝하다. 「4」(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부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돌연하다. 「5」(몇몇 어근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흥하다./착하다. 「6」(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체하다./뻘하다.

이때 뜻풀이에 ( )로 제시된 결합 정보에 부합되는 용례만 있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즉, 이러한 접사와 결합하는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와, 그에 따른 언어 단위 설정 등과 관련하여 고찰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常)-되다’의 ‘상(常)’, ‘오달-지다’의 ‘오달’ 등처럼 명사나 어근 등이라고 할 수 없는 선행 요소에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당 선행 요소들을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 1.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에 따른 분류

여기에서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문법 범주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본다.<sup>9)</sup> 용례들에서 보이는 유형은 다음

9) 김문기(2019, 25-29)에서는 형용사를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합성 형용사들의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유형을 ‘명사+동사, 어근+동사, 동사+동사, 부사+동사, 동사+보조 동사, 불분명 어근+동사, 의존 명사+불분명 어근’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명사+동사’ 유형이 가장 많은 것

과 같다.

- (7) ㄱ.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경우
  - ㄴ.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 선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경우
    - 나.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경우
    - 다.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경우

1)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모두 분명한 경우

〈표 1〉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동사	가멸-차다, 기(氣)-막히다, 기(氣)-차다, 기운-차다, 기장-차다, 냉골-지다, 눈꼴-틀리다, 능갈-치다, 다기(多氣)-차다, 담(膽)-차다, 대살-지다, 대-차다, 더넘-차다, 덩가리-지다, 덩굴-지다, 동-떨어지다, 때-맞다, 목-마르다, 보람-차다, 불-먹다, 불-메다, 빛-바래다, 빛-겹다, 살-차다, <sup>10)</sup> 새통-빠지다, 성(性)-마르다, 속상(傷)하다 <sup>2)</sup> , 숨-차다, 실(實)-차다, 아귀-차다, 아금-받다, 안-차다, 알-차다, 앞-차다, 애-바르다, 얼-뜨다, 열(熱)-떠다, 위엄(威嚴)-차다, 의기(義氣)-차다, 자랑-차다, 장(長)-차다, 정(情)-어리다, 정(情)-차다, 주제-넘다, 피-어리다, 활기(活氣)-차다, 희망(希望)-차다, 힘-들다, 힘-차다	49
어근	동사	기성(氣盛)-차다, 꺼덕-치다, 능글-차다, 매물-차다, 번질-나다, 솟-겹다, 암-띠다, 우람-차다, 우렁-차다, 흉(凶)-업다	10
부사	동사	다-되다, 덜-떨어지다, 덜-먹다 <sup>1)</sup> , 똑-따다 <sup>2)</sup> , 못-되다, 뻔질-나다, 왕창-뜨다, 한갓-지다, 헤-벌어지다	9
동사	동사	깎아-지르다, 낚-삭다, 돌-나다, 들-차다, 뛰-어나다, 빼-어나다, 시들-마르다	7
동사	보조 동사	되지-못하다, 마지-못하다, 멋들어-지다	3
의존 명사	동사	성-부르다	1
합계			79

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장아(2020, 26-34)에서는 ‘비형용사 어근+비형용사 어근’의 구성 방식을 ‘명사+동사, 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기타 어근+동사’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0) ‘살-차다’의 의미에는 후행 요소가 동사인 ‘차다’의 의미로 ‘1」 혜성 꼬리의 빛이 세차다’가, 형용사인 ‘차다’의 의미로 ‘2」 성질이 불임성이 없이 차고 매섭다’가 설정된다는 점이

이처럼 ‘명사+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동사+동사’, ‘동사+보조 동사’, ‘의존 명사+동사’ 등의 순으로 결합 양상을 보였다.<sup>11)</sup> 특히, 선행 요소로는 ‘명사, 어근, 부사, 동사, 의존 명사’의 순으로, 후행 요소로는 ‘동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적으나마 ‘보조 동사’가 결합하기도 하였다.

이제 몇몇 예들을 통해 그 결합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본다.<sup>12)</sup>

- (8) ㄱ. 기(氣)-막히다. 「1」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2」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
- ㄴ. 성-부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함을 나타내는 말.
- ㄷ. 뻘질-나다. 드나드는 것이 매우 잦다.
- ㄹ. 들-차다. 「1」 뜻이 굳세고 몸이 튼튼하다. 「2」 몹시 거세다.
- ㅁ. 번질-나다. 잇따라 드나드는 것이 잦다.
- ㅂ. 멋들어-지다. 아주 멋있다.

(8ㄱ)은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것으로,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 의미로 볼 때에는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진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특이한 점은 그 의미가 부정적 의미(「1」)와 긍정적 의미(「2」)를 함께 나타낸다는 것이다. (8ㄴ)은 의존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보조 형용사를 형성한 것이다. 그런데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함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보면 선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의미의 후반부에 적용되고, 후행 요소의 의미가 전반부에 적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동사나

---

특이하다. 따라서 ‘살-차다’의 두 의미는 결국 ‘명사+명사’, ‘명사+형용사’의 결합 구성을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에 따라 표제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명사+동사’의 결합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명사나 어근 등의 선행 요소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여기에서는 각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미적인 측면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형용사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라는 결합 정보대로라면 의존 명사가 결합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8ㄷ)은 부사와 동사가 결합한 것으로, (8ㄴ)처럼 선행 의미와 후행 의미가 서로 바뀌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행 요소의 의미에는 ‘들어갔다’의 의미가 없기에 이 의미가 발현된 이유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8ㄷ)은 동사와 동사가 결합한 것인데, 선행 요소의 의미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가 비유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어떤 높이나 한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다.’와 같은 후행 요소의 의미가 함께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8ㄱ)은 어근과 동사가 결합한 것으로, 선행 요소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곧 선행 요소 ‘번질’의 의미가 ‘잇따라 드나드는 것이 잦다.’라는 의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쉽게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sup>13)</sup> 이때 (8ㄷ)의 선행 요소인 ‘뻗질’과 의미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나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뻗질’은 부사로, ‘번질’은 어근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은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그리고 후행 요소의 경우는 (8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8ㄴ)은 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된 구성으로, 선행 요소의 ‘뗏이 생기다’와 후행 요소의 ‘(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 2)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경우

여기에서는 그 구성 요소 중 하나 또는 모두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때 『표준』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 문법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의미가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13) 그렇다면 국어사전에서 어근 ‘번질’의 의미에 ‘번질나다’의 의미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표 2〉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없음 <sup>14)</sup>	동사	간-지다, 거덕-치다, 기똥-차다, 무-죽다, 뺏-마르다, 승겁-들다, 신동-부러지다, 알로-까다, 야멸-치다, 어기-차다, 울목-갓다, 웅골-차다, 좌-뜨다, 청-치지다, 흰걸-차다	15
불분명 <sup>15)</sup>	동사	고비-늙다, 골-차다, 도-뜨다, 메-떨어지다, 메-마르다, 아름-차다, 웅-차다, 해-바라지다, 해-먹다, 해-식다	10
없음	보조 동사	간드러-지다, 건드러-지다, 앙그러-지다	3
불분명	보조 동사	도드라-지다, 치어-나다	2
합계			30

후행 요소로는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조 동사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것이 그 뒤를 이었다.

- (9) ㄱ. 간-지다: 「1」 붙은 데가 가늘고 약하여 곧 끊어질 듯하다. 「2」 간드러진 맛이 있다.  
 ㄴ. 간드러-지다: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 ≍산드러지다.  
 ㄷ. 웅-차다: 매우 웅골지다.(실속이 있게 속이 짝 차 있다.)  
 ㄹ. 도드라-지다: 「1」 가운데가 쏙 나와서 볼록하다. 「2」 걸음으로 드러나서 뚜렷하다.

(9ㄱ)은 선행 요소 ‘간’이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문법 범주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전체 의미를 통해 그것이 명사나 어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sup>16)</sup> 그렇다면 후행 요소는 보조 동사가 아닌 동사로 볼 수 있다. (9ㄴ)은 선행 요소인 ‘\*간들다, \*간드르다’ 등의 용언이

14) ‘없음’은 해당 구성 요소가 『표준』에 표제어나 어근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15) ‘불분명’으로 처리한 것은 『표준』에 등재된 단어나 어근 등의 문법 범주이지만, 해당 합성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 요소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선행 요소의 경우에는 그 구성 요소가 한자어가 아니지만 의미적 유사성을 보이는 한자어가 있는 경우, 합성 형용사의 의미로 볼 때 그와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후행 요소의 경우에는 이들에 덧붙여 그 문법 범주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더 있었다.

16) 이때 선행 요소 ‘간’이 용언의 활용형일 가능성은 희박한데, 『표준』에 등재된 모든 ‘갈다’는 동사로서 ‘간지다’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표준』에서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행 요소로는 동사와 보조 동사로 쓰이는 ‘지다4’와 접사인 ‘-지다8’일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몇몇 명사에 결합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자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행 요소는 동사보다는 형용사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9ㄷ)에서 ‘옹’은 『표준』에 ‘옹하다’의 어근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차다’는 동사로 보아야 한다. (9ㄷ)의 후행 요소는 동사 또는 보조 동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선행 요소는 용언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들다, \*도들다’ 등이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문법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돌다1’와 보조 동사 ‘지다4’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결 어미가 ‘-아/어’로 상정될 수는 없다. 더구나 『표준』의 보조 동사 ‘지다4’에는 “(형용사 뒤에서 ’ -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라는 결합 정보가 특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행 요소는 형용사로 볼 가능성도 있게 된다.

둘째,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후행 요소가 ‘동사’인지 ‘보조 동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8)</sup>

〈표 3〉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없음	애-꿨다	1
동사	불분명	숫아-나다	1
어근	불분명	옴팡-지다 <sup>19)</sup>	1
합계			3

17) 선행 요소를 동사로 볼 때, 후행 요소 ‘지다4’를 동사로 본다면 피동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므로 ‘간드러지다’ 전체의 의미와 관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다4’를 보조 동사로 본다면 선행 요소는 동사로 파악해야 하는데, 선행 요소가 동사라고 확정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18) 물론 해당 단어들이 모두 형용사임을 감안한다면, 후행 요소를 ‘형용사’나 ‘보조 형용사’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후행 요소들이 모두 ‘동사’나 ‘보조 동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선행 요소가 어근에 해당한다면, 후행 요소는 다른 문법 범주로 파악할 가능성도 남겨 둘 필요가 있다.

19) ‘옴팡-지다’의 의미인 “1)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속 들어가 있다”는 후행 요소를 접미사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파생 형용사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 ‘2) 아주 심하거나 지

먼저 선행 요소가 동사인 경우, 결합된 후행 요소는 동사나 보조 동사로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의미를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sup>20)</sup>

- (10) ㄱ. 애꿎다: 「1」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다. 「2」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ㄴ. 솟아나다: 여럿 가운데서 뚜렷이 드러나다.  
 ㄷ. 옴팡지다: 「1」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속 들어가 있다. 「2」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

(10ㄱ)의 선행 요소 ‘애1’은 명사로서, ‘1」 초조한 마음속, 「2」 몹시 수고로움’의 뜻이다. 그리고 후행 요소 ‘꿎다’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데, 의미상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긋다2’와 접미사 ‘-긋다3’이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파악하든 문제가 남게 되므로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sup>21)</sup> (10ㄴ)에서 선행 요소는 동사임에 분명하다. 반면, 후행 요소인 ‘나다’가 동사인지 보조 동사인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이는 동사이든 보조 동사이든 전체 형용사의 의미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10

---

독한 데가 있다’의 경우는 후행 요소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합성 형용사로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옴팡지다’는 그 의미에 근거를 둔다면, 파생과 합성의 조어법을 모두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특이한 구성으로 파악된다.

- 20) 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의미적 구별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시사한다. 즉, 보조 용언을 설정할 때 의미를 그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정적인 기준이라 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 21) 아래의 ㄱ과 ㄴ, ㄱ과 ㄷ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다.  
 ㄱ. 애1(명): 「1」 초조한 마음속, 「2」 몹시 수고로움.  
 ㄴ. 긋다2(형): 「1」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 「2」 언짢고 나쁘다.  
 ㄷ. -긋다3(접):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상태가 심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22) 참고로, ‘빠어나다’의 경우에는 후행 요소를 동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그 의미가 ‘여럿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라는 점에 기댈 수 있는데, 동사 ‘나다’의 ‘6 「2」 사람 됨됨이나 생김새가 뛰어나다’ 의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ㄷ)은 선행 요소인 어근 ‘옴팡2’에 ‘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후행 요소인 ‘지다’가 동사인지 접미사인지 불확실하다. 이는 (10ㄷ「1」)로는 접미사 ‘-지다 8’로 보아야 하는 반면, (10ㄷ「2」)로는 동사 ‘지다4’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셋째, 선·후행 요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이다.

〈표 4〉 선·후행 요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불분명	없음	곰-살긱다, 곰-살맛다	2
없음	불분명	바따라-지다, 선드러-지다, 야나-치다, 얼토당토-아니하다, 얼토당토-않다, 자지러-지다2, 하차목지-않다, 흐드러-지다, 호무러-지다, 호무-지다2, 흐벅-지다	11
불분명	불분명	산드러-지다	1
합계			14

- (11) ㄱ. 곰-살긱다: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2」 꼼꼼하고 자세하다.
- ㄴ. 야나-치다: 영락없고 매몰하다.<sup>24)</sup>
- ㄷ. 산드러-지다: 「1」 태도가 맵시 있고 말쑥하다. 「2」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

(11ㄱ)은 선·후행 요소의 결합 경계가 모호한 것에 해당한다. 곧 의미상 선행 요소 ‘곰’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 ‘곰’으로 볼 수 없으며, 후행 요소인 \*‘살긱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후행 요소 모두 그 문법 범주를 비롯하여 의미를 모두 추정할 수 없는 형용사가 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곰-살긱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11ㄴ)은 선행 요소가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후행 요소 역시 『표준』에 실려 있는 ‘치다1~치다11’

23) 이 경우는 「1」과 「2」의 의미가 서로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4) 영락(零落)없다(형):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매몰-하다(형):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싹싹맞다.

의 의미와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11ㄷ)의 선행 요소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산들다’와 ‘\*산드르다’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들다’는 그 의미가 ‘산드러지다’와는 전혀 달랐으며, ‘\*산드르다’는 『표준』에 없었다. 그리고 후행 요소인 ‘지다’는 ‘동사’, ‘보조 동사’, ‘접미사’ 등으로 쓰이는데, 선행 요소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라 확정하기 곤란하다.

이상에서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로 살펴본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결합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25)</sup>

- (11) ㄱ.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79): 명사+동사(49), 어근+동사(10), 부사+동사(9), 동사+동사(7), 동사+보조 동사(3), 의존 명사+동사(1)
- ㄴ. 선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30): 없음+동사(15), 불분명+동사(10), 없음+보조 동사(3), 불분명+보조 동사(2)
- ㄷ.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3): 명사+없음(1), 어근+불분명(1), 동사+불분명(1)
- ㄹ.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모두 불분명(14): 불분명+없음(2), 없음+불분명(11), 불분명+불분명(1)

## 2.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관련성에 따른 유형

앞서 논의한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와 관련된 유형 분류는, 당연히 해당 문법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언어 단위로서의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 (12)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25) 장여(2020)에서 ‘비형용사 어근+비형용사 어근’의 구성 방식을 ‘명사+동사, 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기타 어근+동사’ 유형으로 제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여 준다.

	표제어	의미	선행 요소의 의미	후행 요소의 의미
ㄱ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명) 부·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 차다(동) 1.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후략)
ㄴ	고비-늙다	지나치게 늙은 데가 있다.	없음 [· 고비(古碑) (명) 오래된 옛 비석]	· 늙다(동) 「1」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후략)
ㄷ	꿈-살긋다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2」 꼼꼼하고 자세하다.	불분명 [· 표제어인 ‘꿈’은 의미적으로 무관]	없음
ㄹ	얼토당토-아니하다	「1」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다. 「2」 전혀 관계가 없다.	없음	불분명 [· ‘아니하다’가 보조 동사인지 보조 형용사인지 불분명함] 동사나 형용사이어야 함.

먼저 (12ㄱ)처럼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명확하고 그 의미적 관련성이 분명히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12ㄴ~ㄷ)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때 (12ㄴ)에서 표제어의 선행 요소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12ㄷ)은 선행 요소가 『표준』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후행 요소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없어서 의미적 연관성을 따질 수 없다. (12ㄷ)은 선행 요소가 『표준』에 없고,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를 확정하지 못하므로 그 의미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sup>26)</sup>

이러한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 (13) ㄱ. 그 의미가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 ㄴ. 그 의미가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26) 다만, 후행 요소가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없는 점은 특이하다.

- 가. 선행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나. 후행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다.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1) 구성 요소들과의 의미적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sup>27)</sup>

여기에서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분명하게 연관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표 5〉 구성 요소들과의 의미적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동사	가멸-차다, 기(氣)-막히다, 기운-차다, 눈썹-틀리다, 능갈-차다 <sup>2)</sup> , 다기(多氣)-차다, 담(膽)-차다, 대-차다, 동-떨어지다, <sup>28)</sup> 때-맞다, 목-마르다 <sup>1)</sup> , 보람-차다, 빛-바래다, <sup>29)</sup> 살-차다, 속-상(傷)하다 <sup>2)</sup> , 습-차다 <sup>1)</sup> , 실(實)-차다, 알-차다, 암-띠다 <sup>2)</sup> , 얼-뜨다, <sup>30)</sup> 열(熱)-띠다, 위엄(威嚴)-차다, 의기(義氣)-차다, 자랑-차다, 장(長)-차다, 정(情)-어리다, 정(情)-차다, 주제-넘다, 피-어리다, 활기(活氣)-차다, 희망(希望)-차다, 힘-들다, 힘-차다	33
동사	동사	납-삭다, 돈-나다, 되지-못하다, 뛰-어나다, 빼-어나다, 시들-마르다	6
어근	동사	기성(氣盛)-차다, 능글-차다, 매물-차다 <sup>1)</sup> , 옴팡-지다, 우람-차다, 우렁-차다 <sup>1)</sup>	6
부사	동사	덜-떨어지다, <sup>31)</sup> 못-되다, 뻥질-나다	3
동사	보조 동사	마지-못하다, 멋들-어-지다	2
동사	불분명	숫아-나다	1
합계			51

27)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합성 형용사의 의미가 명확하게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교적 분명한 경우도 이에 포함하였다.

28) 이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통해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하였다.

29) 이는 의미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하였다.

30) 선·후행 요소의 의미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보아 여기에 포함하였다.

31) ‘쇠딱지가 아직 채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나이에 비하여 어리고 미련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로 볼 때, 이는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관계 없이 ‘덜-떨어지다’의 앞에 생략된 표현과 관련된 의미 확장 표현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후행 요소의 의미는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가운데 몇몇 예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능갈-치다<sup>2</sup>: 아주 능청스럽다.  
 ㄴ. 살-차다: 「1」 혜성 꼬리의 빛이 세차다. 「2」 성질이 불임성이 없  
 이 차고 매섭다.  
 ㄷ. 암-따다<sup>2</sup>: 수줍은 성질이 있다.  
 ㄹ. 돋-나다: 인품이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ㅁ. 뻘질-나다: 드나드는 것이 매우 잦다.  
 ㅂ. 옴팡-지다: 「1」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속 들어가 있다. 「  
 2」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  
 ㅅ. 솟아-나다: 여럿 가운데서 뚜렷이 드러나다.

(14ㄱ)은 본래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인데, 형용사로서는 두 의미가 있었다. 이 중 「2」의 의미로 보면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1」 교묘하게 잘 둘러대는 재주가 있다'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사로서의 의미인 '교묘하게 잘 둘러대다'와 아주 유사하다.<sup>32)</sup> (14ㄴ)은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1」의 의미로 보면 후행 요소를 동사로, 「2」의 의미로 보면 후행 요소를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성 요소로 볼 때 형용사가 구성 요소로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sup>33)</sup> (14ㄷ)의 '암따다'는 「2」의 의미로 보면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관련성이 확인된다. 하지만 「1」 비밀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로 보면 그렇지 못한데, '우렁차다' 등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14ㄹ)은 선행 요소인 '돋다'가 '두드러지게'와 같은 의미로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4ㅁ)은 선행 요소의 의미가 뒤에, 후행 요소의 의미가 앞에 배치되어 구성 요소의 배치와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14ㅂ)의 「1」은 후행

32) 이처럼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일 경우가 6개였는데, 그 의미에 따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33) 「1」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후행 요소인 '차다'를 형용사 '세차다'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솟차다<sup>1</sup>' 등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요소를 접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생 형용사로 처리 가능한 반면, 「2」는 후행 요소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합성 형용사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에 기대면, 파생과 합성의 조어법을 모두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특이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 (14)은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형용사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다만,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성 형용사로 볼 것인지 보조 용언 구성으로 볼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 2) 구성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선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선행 요소의 의미가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6〉 선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동사	안-차다	1
부사	동사	한갓-지다, 헤-벌어지다	2
어근	동사	번질-나다, 매물-차다 <sup>2)</sup> , 우렁-차다 <sup>2)</sup>	3
없음	동사	간-지다, 거덕-치다, 기똥-차다, 무-죽다, 뺏-마르다, 어기-차다, 울목-갓다, 웅골-차다, 웅-차다, 칭-쳐지다, 현걸-차다	11
없음	불분명	바따라-지다, 얼토당토-아니하다, 얼토당토-않다, 자지러-지다 <sup>2)</sup> , 하차목지-않다, 흐드러-지다, 흐무러-지다, 흐무-지다, 흐벅-지다	9
불분명	동사	고비-늙다, 골-차다, 도-뜨다, 메-떨어지다, 메-마르다, 아름-차다, 해-바라지다, 해-식다	8
없음	보조 동사	간드러-지다, 건드러-지다	2
불분명	보조 동사	도드라-지다, 앙그러-지다, 치어-나다	3
불분명	불분명	산드러-지다, 선드러-지다	2
합계			41

이들 가운데 몇몇 예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ㄱ. 안-차다: 겁이 없고 아무지다.  
 ㄴ. 한갓-지다: 한가하고 조용하다.  
 ㄷ. 매몰-차다<sup>2</sup>: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며 웅골차다.  
 ㄹ. 웅-차다: 매우 웅골지다.(실속이 있게 속이 꽉 차 있다.)  
 ㄴ. 도드라-지다: 「1」가운데가 쪽 나와서 볼록하다. 「2」겉으로 드러나서 또렷하다.  
 ㅂ. 얼토당토-않다: 「1」합당하지 아니하다. 「2」전혀 관계가 없다.  
 ㅅ. 산드러-지다: 「1」태도가 맵시 있고 말쑥하다. 「2」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서 게 보드랍고 가늘다.

(15ㄱ)의 의미에서 후행 요소인 동사 ‘차다’의 의미는 ‘아무지다’와 관련 지을 수 있지만, 선행 요소 ‘안’은 ‘겁’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 (15ㄴ)의 선행 요소 ‘한갓’은 ‘다른 것 없이 겨우’의 의미로 이외는 관련이 없다.<sup>34)</sup> (15ㄷ)은 ‘「1」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아주 쌀쌀맞다’의 의미로 보면 선행 요소와 의미적 관련성이 높지만, 「2」는 전혀 그렇지 않다.<sup>35)</sup> (15ㄹ)은 후행 요소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형용사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sup>36)</sup> (15ㄴ)에서 선행 요소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도드다, \*도들다’ 등이 『표준』에 없다. 그러나 그 형태와 의미로 본다면 용언의 일종으로 볼 가

34) 명사 ‘한가(閑暇)’와는 의미적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한갓’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35) 특히 「2」의 의미가 「1」과 관련이 없고 더구나 그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매몰차다’를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36) 아래 ㄱ과 ㄴ의 의미적 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구성 요소의 의미적 함이 전체 단어의 의미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ㄱ. 웅: 「1」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 「2」웅색하고 변변치 아니하다. 「3」마음이 좁고 모양이 오종종하다.

ㄴ. 차다: 1. 「1」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3」어떤 높이나 한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다. 3. 「1」정한 수량, 나이, 기간 따위가 다 되다.

능성이 높으므로, 후행 요소 ‘지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다. (15ㄷ)은 선행 요소가 『표준』에 없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sup>37)</sup> 하지만 ‘않다’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면, 선행 요소의 의미를 분리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선행 요소를 국어사전에서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5ㄸ)에서 선행 요소는 『표준』에 ‘산들다’라는 동사로 ‘바라던 일이나 소망이 틀어지다’의 의미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해당 형용사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후행 요소는 동사인지만 보조 동사인지만 분명하지 않은데, 선행 요소의 형태를 본다면 보조 동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참고로, ‘선드러지다’의 의미로 보면 ‘산드러지다’, ‘간드러지다, 건드러지다’ 등과의 의미적 연관성도 명확해 보인다.

- (16) ㄱ. 간드러지다: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 =산드러지다.  
 ㄴ. 건드러지다: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아름다우며 멋들어지게 부드럽고 가늘다.  
 ㄷ. 산드러지다: 「1」 태도가 맵시 있고 말쑥하다. 「2」 목소리나 맵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 =간드러지다  
 ㄹ. 선드러지다: 태도가 경쾌하고 맵시가 있다.

그런데 먼저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는 (16ㄱ)과 (16ㄷ)의 관계를 보면 (16ㄱ)이 기본 표제어가 된다.<sup>38)</sup> 그렇다면 (16ㄱ)과 (16ㄴ), (16ㄷ)과 (16ㄹ)은 각각 음상의 대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뜻풀이 자체에서 차

37) 더구나 후행 요소 ‘않다’는 『표준』에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선행 요소를 고려한다면 보조 용언이라기보다는 자립 용언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38) 『표준』의 ‘일러두기’의 ‘관련 어휘’ 항목에서는 ‘동의어’의 표시 방법에 대해 “(1)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어 동의 관계에 있는 표제어들 중 어느 하나를 기본 표제어로 삼았다. 기본 표제어에는 뜻풀이 뒤에 ‘≡’ 기호를 사용하여 동의어들을 모두 보여 주었다. 기본 표제어 외에 나머지에서는 뜻풀이 뒤에 ‘≡’ 기호를 사용하여 기본 표제어만을 제시하였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 요소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표 7〉 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동사	기장-차다, 성(性)-마르다, 앞-차다	3
의존명사	동사	성-부르다	1
동사	동사	깎아-지르다	1
부사	동사	다-되다, 똑-따다 <sup>2</sup> , 왕청-뜨다	3
어근	동사	숫-잡다, 흥(凶)-업다	2
합계			10

- (17) ㄱ. 기장-차다: 물건이 곧고 길이가 길다.  
 ㄴ. 성-부르다: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나 짐작함을 나타내는 말.  
 ㄷ. 흥(凶)-업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불쾌할 정도로 흥하다.  
 ㄹ. 숫-잡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13ㄱ)은 ‘길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행 요소의 의미가 뒤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조 형용사인 (13ㄴ)도 선행 요소의 의미가 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후행 요소의 의미 적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3ㄷ)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인다. (13ㄹ)은 선행 요소의 의미와 관련성이 깊은데, 후행 요소의 의미가 어떻게 관여하는지가 불분명하다.<sup>39)</sup>

셋째, 선·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9) 후행 요소인 ‘잡다’가 접미사인 ‘-잡다’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잡다’가 발음상의 변화를 거쳐 ‘-잡다’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표 8〉 선·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선행	후행	용례	개수
명사	동사	기(氣)-차다, 녕쿨-지다, 능갈-치다「1」, 대살-지다, 땡가라-지다, 더남-차다, 덩쿨-지다, 목-마르다「2」, 불-먹다, 불-메다, 빛-집다, 새통-빠지다, 숨-차다「2」, 아귀-차다, 아금-받다, 애-바르다	16
동사	동사	들-차다	1
부사	동사	덜-먹다「1」	1
어근	동사	꺼덕-치다, 암-띠다「1」	2
명사	없음	애-꽃다	1
없음	동사	승겁-들다, 신둥-부리지다, 알로-까다, 좌-뜨다	4
없음	불분명	야나-치다	1
불분명	동사	야멸-치다, 해-먹다	2
불분명	없음	곰-살긱다, 곰-살맏다	2
합계			30

- (18) ㄱ. 녕쿨-지다: 마음이 뒤틀려 비꼬인 상태에 있다.=덩굴지다.  
 ㄴ. 땡가라-지다: 여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깜찍하고 야무지다.  
 ㄷ. 목-마르다「2」: 바라거나 아쉬워하는 상태에 있다.  
 ㄹ. 애-꽃다: 「1」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다. 「2」 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ㅁ. 곰-살긱다: 「1」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2」 꼼꼼하고 자세하다.

(18ㄱ)은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으로서, 동사의 의미 ‘식물의 줄기가 덩굴이 되어 번다’로 보면 선·후행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형용사의 의미로는 선·후행 요소의 의미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sup>40)</sup> (18ㄴ)은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18ㄷ)은 선·후행 요소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관용적 의미로 굳어진 것으로 파악해야 할 정도로 판단된다. (18ㄹ)은 「1」의 의

40) 이때 동사의 의미가 유정물에게까지 적용되어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 가능하지만, 그 근거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미로 보면 선행 요소의 의미가 ‘억울하다’의 의미로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2」의 의미로 본다면 선·후행 요소의 의미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에서 선행 요소인 ‘꿈’이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만, 그 의미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리고 후행 요소인 ‘\*살굿다’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sup>41)</sup> ‘꿈살맞다’도 여기에 해당된다.

### 3.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품사 결정 양상

여기서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문법 범주를 형용사로 처리할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합성 형용사의 구성 요소로 형용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형용사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법 범주로 볼 때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속성,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 선행 요소로 결합되는 문법 범주들을 보면 명사, 어근, 부사 등이 동사나 보조 동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이름은 그 사물의 속성, 성질 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어근’은 완전한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물의 속성, 성질 등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어떠하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어떠하게’는 ‘어떠하다’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속성, 성질, 상태 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선행 요소로 결합된 문법 범주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선행 요소들

41) 이때 그 결합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즉, ‘[[꿈+살]+굿다]’와 ‘[꿈+살+굿다]’ 중 어느 것으로 파악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표제어 제시 형식에 따르면 후자로 보아야 하지만, 선행 요소가 ‘꿈’이든 ‘꿈살’이든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그 결합 구조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을 형용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미적 측면에서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에 구성 요소들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합성 형용사의 의미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인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sup>42)</sup>

이에 해당하는 용례로는 ‘녕쿨지다, 덩굴지다, 도드라지다, 흐무러지다, 능갈치다, 목마르다, 승겁들다, 솟아나다, 해바라지다, 헤벌어지다’ 등이 해당된다.<sup>43)</sup> 이때 ‘녕쿨지다, 덩굴지다’는 ‘명사+동사’, ‘도드라지다, 흐무러지다’는 ‘없음+동사’, ‘능갈치다, 목마르다’는 ‘명사+동사’, ‘승겁들다’는 ‘없음+동사’, ‘솟아나다’는 ‘동사+동사’, ‘해바라지다, 헤벌어지다’는 ‘불분명+동사’의 구성을 보인다.

이제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sup>44)</sup>

- (19) ㄱ. 녁쿨-지다: [I] (동) 식물의 줄기가 덩굴이 되어 번다=덩굴지다.  
[II] (형) 마음이 뒤틀려 비꼬인 상태에 있다.=덩굴지다.  
ㄴ. 녁쿨(명):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덩굴.  
ㄷ. 지다<sup>4)</sup>(동):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2」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sup>45)</sup>

42) 물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추후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어법과 관련하여 그 구성 요소들과 언어 단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깊이 있게 모색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구성 요소로 형성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가 동사와 형용사로 규정된 근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러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3) 여기에서 후행 요소로 ‘지다<sup>4)</sup>, 치다, 마르다<sup>1)</sup>, 나다<sup>1)</sup>, 들다<sup>1)</sup>, 바라지다, 벌어지다’ 등이 결합되어 있는데, ‘지다<sup>4)</sup>, 나다<sup>1)</sup>, 들다<sup>1)</sup>’는 동사와 보조 동사로, ‘치다, 마르다<sup>1)</sup>, 벌어지다’는 동사로 쓰인다. 이에 비해 ‘바라지다’는 동사와 형용사 품사 통용에 해당된다.

44) 이때 해당 단어들의 의미들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관련된 의미만 제시하기로 한다.

45) 이때 후행 요소는 접미사인 ‘-지다<sup>8)</sup>’로 볼 수도 있지만, (19-ㄱ[II])의 의미와는 관련성이 없다. 또한 『표준』에는 ‘-지다<sup>8)</sup>’이 형용사 형성의 정보만 제시되어 있는데도, (19-ㄱ[I])처럼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접미사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9ㄱ)은 동사일 경우에는 (19ㄴ, ㄷ)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형용사일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동사의 의미에서 적용의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면서 비유적 의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곧 동사의 의미에서 적용상의 전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20) ㄱ. 도드라-지다: [I](동)「1」가운데가 볼록하게 솟 내밀다. 「2」겉으로 또렷하게 드러나다. [II](형)「1」가운데가 솟 나와서 볼록하다. 「2」겉으로 드러나서 또렷하다.

ㄴ. \*도들다, \*도들다: 없음

ㄷ. 지다4(보조 동사): 「1」(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2」(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 「3」(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먼저, (20ㄴ)이 『표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용언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20ㄱ)을 통해 동사 ‘돌다1’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sup>46)</sup> 또한 상태의 변화나 피동 등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후행 요소는 (20ㄷ)에서처럼 보조 동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한편, (20ㄱ)에서 동사와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아주 유사하므로 (20ㄴ)이 어떤 단어인지 불확실하지만 동사와 형용사 통용의 단어라고 한다면 (20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21) ㄱ. 목-마르다: [I](형)「1」물 따위가 몹시 먹고 싶다. 「2」몹시 바라거나 아쉬워하는 상태에 있다. [II](동) 어떠한 것을 간절히

46) 돌다1(동): 1. 「1」해나 달 따위가 하늘에 솟아오르다. 「2」입맛이 당기다. 2. 「1」속에 생긴 것이 겉으로 나오거나 나타나다. 「2」살갓에 어떤 것이 우뚝두뚝하게 내밀다. 「3」감정이나 기색 따위가 생겨나다.

원하다.

- ㄴ. 목1(명): 「2」 식도와 기도로 통하는 입안의 깊숙한 곳.
- ㄷ. 마르다1(동): 「1」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2」 입이나 목 구멍에 물기가 적어져 갈증이 나다. 「6」 감정이나 열정 따위가 없어지다.

이는 (19)와는 정반대의 의미적 양상을 보인다. 곧 (21ㄴ, ㄷ)을 통해 직접적으로 (21ㄱ)의 형용사 의미가 도출되고, 이것이 적용상의 전이를 통해 동사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요소들의 의미 결합으로 생성된 형용사의 의미가, 인간의 심리적 상태에 적용되면서 동사의 의미로 비유적 전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22) ㄱ. 승겁-들다: [I](동) 힘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다. [II](형) 초조해하는 기색이 없이 천연스럽다.
- ㄴ. \*승겁: 없음
  - ㄷ. 들다1(동): 2. 「1」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5」 어떤 처지에 놓이다. 「7」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 「8」 (주로 ‘…(에) 들어, 들자’ 꼴로 쓰여) 어떠한 시기가 되다. 4.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5. 「5」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6」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22)는 위 용례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곧 (22ㄴ)이 『표준』에 없어서 (22ㄴ, ㄷ)의 의미적 합이 (22ㄱ)의 동사로서의 의미라 추정 가능하며, 이것이 적용상의 전이를 통해 형용사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2ㄷ)가 (22ㄱ)의 동사로서의 의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2ㄴ)의 의미가 (22ㄱ)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형용사의 의미는 인간의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고, 동사의 의미는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떤 사건에 관여하여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동사의 의미가 좀 더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ㄱ)의 동사와 형용사 의미의 발현 순서와는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으며, 이들 의미 사이

의 추상성 정도로 보아 동사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 (23) ㄱ. 솟아-나다: [ I ](동) 「1」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2」 감정이나 힘 따위가 생겨서 일어난다. [ II ](형) 여럿 가운데서 뚜렷이 드러나다.
- ㄴ. 솟다(동): 1. 「1」 연기와 같은 물질이나 비행기와 같은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또는 속에서 겉으로 세차게 움직이다. 4. 사람의 몸이나 마음속에 힘이나 의욕 따위가 생겨나다.
- ㄷ. 나다: [ I ](동) 1. 「1」 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2. 「3」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4. 「3」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다. 5. 「6」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 「7」 속도, 열, 빛 따위의 속성이 드러나다. [ II ](보조 동사) 「1」(동사 뒤에서 ‘-어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말.

(23ㄱ)에서 동사의 의미는 확실히 (23ㄴ,47) ㄷ)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23ㄱ「1」)과 (23ㄱ「2」) 사이에 의미의 적용상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사와 형용사 의미 사이에서가 아닌 동사 의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용례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형용사 의미와 동사 의미 사이에서는 적용상의 의미 전이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는 (23ㄱ「1」)과 형용사 의미 사이의 관련성이 아주 밀접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기 때문이다.

- (24) ㄱ. 해-바라지다: [ I ](동) 어울리지 아니하게 넓게 바라지다. [ II ](형) 어울리지 아니하게 조금 넓다.

47) 참고로, (23ㄴ)에서 ‘1. 「1」’의 뜻풀이에 ‘비행기와 같은 물체’가 등장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보통 기본 의미(또는 중심 의미)가 가장 먼저 제시된다는 점에서 ‘솟다’는 ‘비행기’가 존재한 후에 등장한 단어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서는 『용비어천가』의 ‘솟다’를 어원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 ㄴ. 해5(부): 「1」 입을 조금 벌리고 힘없이 싱겁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입을 조금 벌리고 경망스럽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ㄷ. 바라-지다: [I] 「동사」 「1」 갈라져서 사이가 뜨다. 「2」 식물이 잎이나 가지 따위가 넓게 퍼져서 활짝 열리다. 「3」 가슴이나 어깨, 등 따위가 옆으로 퍼지다. [II] 「형용사」 「1」 그릇 따위가 속은 얇고 위가 넓어서 바드름하다. 「2」 도량이 좁고 포용력이 적다. 「3」 나이에 비하여 지나치게 아무지다.

(24ㄱ)의 동사와 형용사 의미는 (20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23ㄱ)과 (23ㄴ)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은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23ㄷ)이 그 자체로 동사와 형용사 통용의 단어라는 점도 독특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의미가 서로 대립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 통용의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들에서는 의미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적용상의 의미적 전이로 품사 통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결론

지금까지 『표준』에 실려 있는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126개를 대상으로 그 구성 방식을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에 따른 유형

- 가)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명사+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동사+동사, 동사+보조 동사, 의존 명사+동사
- 나)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 ㉑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 없음+동사, 불분명+동사, 없음+보조 동사, 불분명+보조 동사
- ㉒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 명사+없음, 어근+불분명, 동사+불분명
- ㉓ 선·후행 요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없음, 없음+불분명, 불분명+불분명

나.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관련성에 따른 유형

- 가) 구성 요소들과 의미적 연관성이 분명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 나) 구성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 ㉑ 선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㉒ 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㉓ 선·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품사 결정 양상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 가. 가설 1: [문법 범주적 측면에서]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 나. 가설 2: [의미적 측면에서]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적 전이로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들에 어떠한 언어 단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모색해 보아야 한다.

**【주제어】**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구성 요소, 문법 범주, 의미적 연관성, 유형, 문법 범주 결정 양상

[참고문헌]

- 강진식(1997). 합성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서울: 태학사, 679-706.
- 고재설(1995). 합성어의 내부 구성과 의미 대립 관계. 국어학, 28, 187-218.
- 구종남(2001). 합성형 보조용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6, 141-159.
- 김문기(2019). 한국어 합성 형용사의 유형 연구. 우리말연구, 56, 5-33.
- 김문기(2021). 감탄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 연구. 인문과학, 122, 5-40.
- 김일환(2000). 어근적 단어의 형태·통사론. 한국어학, 11, 213-226.
- 오규환(2021). 한국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유형과 특성. 국어학, 97, 293-339.
- 오규환(2022). 한국어 복합 서술어 구성의 형성 원리와 변화 요인. 형태론, 48, 311-346.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월인, 41-50, 55-67, 92-93, 105-108.
- 이현희(2013). 의도적 단어 만들기에 나타난 조어 방식 연구. 어문학, 122, 235-268.
- 임성규(1997). 형용사 파생에 관여하는 어근 접미사 연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서울: 태학사, 1093-1120.
- 장아(2020). 한국어 합성 형용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조지연(2010). 'N+V' 합성형용사의 논항 구조와 의미역.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사전학회 17차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85-106.
- 조지연(2012). 'X+같다' 형용사의 논항구조와 의미. 언어와 정보사회, 17, 35-64.
- 최형강(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33-60.
- 최형용(2006).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 143, 235-272.
- 최형용(2014). 복합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국어학, 70, 85-115.
- 최형용(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81, 351-391.
- 합희진(2007).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의 어휘사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8, 157-192.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 07. 13.~10. 15.)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표준』에 등재된, 형용사가 구성 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합성 형용사(무형용사 합성 형용사) 126개를 대상으로 그 유형과 의미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명사+동사, 어근+동사, 부사+동사, 동사+동사, 동사+보조 동사, 의존 명사+동사’로, 후자의 경우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경우와 선·후행 요소가 모두 불분명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으로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의미와 각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그것이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후자는 다시 선행 요소 또는 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선·후행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의 문법 범주 결정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문법 범주적 측면에서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형용사로서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미적 측면에서 선·후행 요소의 의미가 전체 무형용사 합성 형용사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적 전이와 관련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 A Study on Compound Adjectives that Do Not Contain Adjectives as Constituents in Korean

Kim, Mun-gi (Kyungsoong Univ.)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ypes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126 compound adjectives that do not include adjectives as components(I call these as “adjectiveless compound adjectives”), which are listed in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First of all, depending on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the constituents, they could be divided into two types where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the constituents were clear and where they were not. The former were divided into “noun + verb, root of a word + verb, adverb + verb, verb + verb, verb + auxiliary verb, dependent noun + verb”, and the latter were divided into types where the preceding element was unclear, where the succeeding element was unclear, and where both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lements were unclear.

Next, depending on the meaning of components and the semantic association of the “adjectiveless compound adjectives”, there were types where the semantic association between the components was clear and types where it was not. The latter was again the type where the semantic association between the preceding or succeeding element was unclear, and the type where the semantic association between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lements was unclear.

Finally, based on these, I examined determinants of the grammatical category of the “adjectiveless compound adjectives” with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 in terms of grammatical categories, one of the components exhibits the characteristic of an adjective. Second, in terms of semantics, if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lements is not related to the “adjectiveless compound adjectives”, it may be related to semantic transfer.

**[Keywords]** adjectiveless compound adjectives, components, grammatical category, semantic relevance, type, determinants of the grammatical category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1일 / 논문심사일: 2024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6일

[저자연락처] [kimmg5058@hanmail.net](mailto:kimmg5058@hanmail.net)